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9.3)

1. APEC에서의 여론 환기 관련

□ [동향]

- 8월 29~30일 칠레 푸에르토바라스에서 개최된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.¹⁾
- o 한국 측 APEC 고위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및 한중일 3국 협력체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점 등을 발언함.
- 일본 대표인 카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교섭관은 일본이 취한 조치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격하면서도 적절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개정이며,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라고 대응함.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일본 산케이 신문은 칠레의 한 외교관이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APEC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함.²⁾

2. 자민당 전 관방장관의 한국 방문 관련

□ [동향]

- 일본 NHK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(河村) 전 관방장관이 한국의 이낙연 총리와 9월 2일 회담하였으며, 총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하여 “금년 11월에 만료됨으로, 그때까지 수출규제 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” 고 발언하였다고 보도함.³⁾

1) 외교부 보도자료, 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[APEC] 고위관리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 제기」 (2019. 8.31)

2) 「韓国の日本批判を注意 APECで議長国チリ」 『産経新聞』 (2019. 9. 3).

3) 「首相 「徴用」 めぐる問題の解決が最優先 韓国側に対応求める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9. 3).

- 그러나 이석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“이 총리가 가와무라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(NHK의 보도대로) 제안을 한 적이 없으며, 이 총리는 ‘일본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’는 것을 설명했을 뿐” 이라고 밝힘.⁴⁾
- 또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.

□ [일본 정부 동향]⁵⁾

- 가와무라 간사장으로부터 방한 결과를 보고받은 아베 총리는 “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며,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” 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함.

4) 「日 언론 "李총리 '지소미아-수출규제' 동시해결 제안, 아베 거부"」 『연합뉴스』 (2019. 9. 3).

5) 각주 3과 출처 동일